

##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의 미적 특성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Wedding Dress in Japan

\*동부산대학 패션디자인과, 부산대학교 생활환경대학 의류학과  
양 현 주\* · 조 윤 주 · 권 영 속

\*Dept. of Fashion Design, Dong-Pusan Colleg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Pusan National University  
Hyeon-ju Yaung\* · Youn-joo Cho · Young-suk Kwon  
(2002. 2. 5 접수)

### 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wedding dress in Japan based on the internal · external aesthetics. They were extruded external and internal aesthetics based on pattern, color and fitt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Decorative characteristics in external aesthetics extracted into three factors; fantasticism, movement, amusement. The fantasticism was based on the omitted pattern, painting gold. The movement was presented through irregular composition, fitting method, and silhouette. The amusement was expressed through the composition focus on a near view and pattern reminded of bring up the image.

Fitting characteristics in external aesthetics extracted into four factors; grace, cubic effect, optical illusion, and tradition. The grace was expressed through the weight, formativeness, and layered look. The cubic effect was presented through spacing of belt, and H-line silhouette. The optical illusion was based on the straight line of seam, V-pleats and straight silhouette of fitting, and high-waisted belt. The tradition expressed through the unchanged form since Heian-dynasty.

Internal aesthetics were characterized by the naturalism and the moderation. The naturalism was presented through the natural pattern which based on subjective feeling, indignity and position of wearing man, and color based on taste. The accessories, expressed artificial moderation, were expressed through the clothing silhouette by simplicity.

**Key words:** aesthetic characteristics, internal aesthetics, external aesthetics, traditional wedding dress in Japan; 미적 특성, 내적 특성, 외적 특성,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

### I. 서 론

파리를 중심으로 발달한 하이패션(high fashion)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 캐주얼 웨어(sport casual

wear) 문화를 주축으로 하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 패션계에 60년대 이후 하나에 모리(Hanae Mori), 겐조(Kenzo) 등을 선두로 하는 일본 문화와 그들의 패션이 등장, 80년대 이르러 새로운 패션의 한 축을 구성하였다.

이는 다품종 소량 생산 양식, 개성의 존중과 다양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네오모더니즘(Neo-modernism) 등의 문화·경제변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패션계의 필연적 요구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일본 정부의 경제력과 지원, 일본 패션 교육의 발달, 일본인 특유의 장인정신, 전통 복식 문화의 올바른 응용 등이 바탕으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특히 가사네노이로메(麩の色目)로 대표되는 일본 전통 복식 문화의 색채 배색방법과 독특한 착장법<sup>1)</sup> 등의 전통 복식 문화를 잘 응용한 일본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는 옷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진 서구 패션에 신선한 자극과 흥미를 주어 새로운 세계패션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다. 일본의 복식 문화가 한반도와 중국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만의 독특한 '일본적 문화'로 발전시켜 나아간 것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제 다소의 편견에서 벗어나 일본 예술과 문화의 독자성과 특성을 바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견해를 가져야 그들의 후손인 일본의 현대 디자이너들이 과거의 전통 복식 미적 특성을 어떻게 이해·응용했는지를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 패션의 세계화에 막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금의 우리 현실을 비추어 볼 때, 한국 전통 복식 문화적 특성을 올바르게 이해·응용화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많은 선행 연구자들과 디자이너들이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 패션의 세계화를 위해선 다수의 객관적인<sup>2)</sup> 미적 감성과 연구자의 주관적인 미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미적 특성을 도출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해 일본 복식 문화적 특성을 올바르게 분석·도출하여 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와 비교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 1) 착장자의 의지에 따른 다양한 비균제적 착장법과 슈니히토에와 같이 여러겹을 겹쳐 입는 착장 방식 등을 지칭.
- 2) 여기서 객관적이라 W. 타타르케비츠의 '미학의 기본 개념사'(pp. 244-264)의 대이론이 아닌 다수의 공통적인 미적 감성의 지칭. 이는 미란 주관적이면서 동시에 보편 공통성을 지녀야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임.

일본 복식미에 관한 국내 선행 연구<sup>3-7)</sup> 등은 일본 현대패션과 일본 디자이너들의 디자인 특성 및 사상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본 내의 선행 연구<sup>8-11)</sup> 등은 화복(和服)에 관한 실태나 의식에 관한 연구, 시대에 따른 화장(和裝)의 조형미 특히 착장미 등에 관해, 주관적인 미적 감성을 바탕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미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전통 복식 중 혼례복식은 시대인의 외적 조형미적 특성 뿐 아니라 이를 지탱하는 내적미 즉 시대인의 미적 가치, 미의식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복식 중 하나이므로, 이를 토대로 일본 전통 복식 미적 특성을 반추해 보는 일은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 전통 복식 문화 중 일본 고유의 외적 조형미적 특성과 내적미적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에도(江戸)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을 선정하여 그 미적 특성을 고찰하고, 차후, 일본 현대 디자이너들의 작품 세계에 나타난 전통 복식 미적 특성과 비교하여 현대 디자이너들의 전통 복식 문화 응용방법 분석에 대한 기초 연구로 활용하고자 한다.

- 3) 박명희, 이세이 미야게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호, 1990.
- 4) 정성혜, 일본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25, 1995.
- 5) 채금석·양숙희, 20세기 현대 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복식24, 1995.
- 6) 임영자,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30, 1997.
- 7) 김지연·전혜경,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31, 1997.
- 8) 金由美·中川早苗, 民族服について意識比較研究-韓·日女學生の民族服について意識差異, 日本家政學會 vol.49, 1998.
- 9) 千村典生, 服飾の美學, 18-和裝の美學, 日本衣生活 no.3, 294號, 1991.
- 10) 遠藤教三, 服裝とその美學, pp.36-57, 太平印刷社, 1970.
- 11) 山岐勝弘, 被服美學, pp. 39-43, 葉田書店, 1980.

## II. 일본 전통 예술의 특성

일본 전통 복식미적 특성을 살펴보기 앞서, 일본 예술의 전반적인 형식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함은 일본 예술의 특성 중 하나인 '일본 예술이 서양이나 한반도와는 달리 회화와 공예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없다'<sup>12)</sup>에서 유추한 것이다. 즉 일본 예술에 두드러진 특성은 일본 민족의 미의식이 잘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전통 복식 문화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일본 전통 복식 미적 특성과 예술의 미적 특성이 상당한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음은 양현주·권영숙의 연구<sup>13)</sup>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867년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프랑스인 에른스트 셰스노(Ernest chesneau)는 일본 예술은 인간, 동·식물의 묘사에 특징적 성격, 생기, 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려내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를 '강조' 혹은 장식 미술에 나타난 '환타지와 기상(奇想)'이라고 언급하고 대칭의 속박에서 벗어난 장식의 풍부함과 자유로움에 주목하였다.

오카쿠라 텐신(岡倉天心)은 「동양의 이상(The ideals of East, 1903)」이란 저서에서 일본 예술의 성격은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을 더 월등하게 보이게 하는 적응력, 불교의 유식론에 근거하여 사생을 떠나 실물 이외의 미적 존재를 인지하는 능력, 우미(優美)함 등으로 말하고 있다.

일본 예술은 6세기 아스카(飛鳥)·나라(奈良)시대의 대륙과 불교적인 영향이 짙은 예술에서 시작하여, 7-8세기를 지나면서 일본의 자연, 민족성 및 일본인의 정취를 담은 섬세한 감각과 세련된 기법의 예술을 창조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예술 특히 회화가 정서를 배제하고 대상을 엄격하게 추구한 반면, 일본인들이 아마토에(大和繪, 倭繪)라고 부르는 그들의 회화는 일본인의 마음속에

있는 자연, 즉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조함과 동시에 자연 그 자체를 관찰자의 마음에 투사하여 그리는 경향이 짙다. 일본 문학에서 말하는 '와카(和歌)'와 동일한 사상적 근본을 가지고 있는 아마토에는 일본적인 자연을 그리는 풍경화의 일종으로 자연을 치밀하게 정밀 묘사하기 보다, 제한된 안료로 생략·강조된 기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생략으로 고도의 기교와 세련된 조형감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또 근세에 이르러서는 대륙의 오래된 동양화의 전통적 특징(중국 및 한반도를 지칭), 즉 동양적인 선의 아름다움 위에 그들 특유의 광택(光澤)을 중시하는 금벽화(金碧畵)를 탄생시키게 되었는데, 이상과 같은 일본 회화의 특성은 인물, 산수(山水), 화조(花鳥) 등을 소재로 하는 다양한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

이는 특히 인물화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강조 부분 외에는 과감히 생략하여 마네킨 같은 이미지, 선이 굵고 맛있게 강약과 농담이 없는 이미지, 설득력이 떨어지는 가공적인 배경과 금벽(金碧) 채색기법 등을 이용한 단순하나 화려하고 장식성이 강한 색채 이용이 주를 이룬다. 일본의 인물화는 중국과 한국의 인물화와 매우 다른 기법으로 전승·제작되어, 에도(江戸)시대에 이르러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특히 18세기 작품인 '풍전 미인도(風前美人圖)' [그림 1]에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다. '풍전 미인도'에서는 옷의 형태와 문양을 특색있게 면밀히 그린 후 얼굴과 손, 발등을 섬세하고 가는 선으로 그려 과장과 생략의 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일본 전통 예술의 개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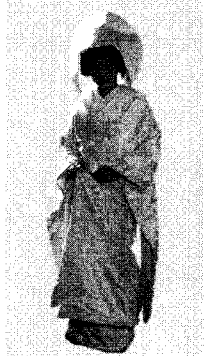
[그림 1] 풍전미인도  
(風前美人圖)  
(동경박물관 소장)

12) 쓰지 노부오, 이원혜역, 일본 미술 이해의 길잡이, 시공사, 1995, p. 16-25.

13) 양현주·권영숙,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 나타난 미적 감성에 대한 연구, 복식51, 2001.



[그림 2] 슈니히토에



[그림 3] 우치가케



[그림 4] 시로무쿠



[그림 5] 후리소데

특성은 ①화려·섬세한 장식성 ②과장과 생략이 두드러진 표현주의적 성향 ③근경(近景)중심적 구성 ④뛰어난 색채 감각 ⑤타 문화를 기반으로 한 뛰어난 재창조력 ⑥공예와 회화의 경계모호 ⑦전통 존중 등으로 볼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전통성이 강하다는 것인데, 일본 전통 예술은 유교적인 전통에 집착하기보다 일본적 소재, 일본의 역사적 사실 등을 자주 다루어 이것이 일본 전통 예술을 더욱 일본적이게 하였으며, 화풍이나 기법 등에 있어서도 일본 고유의 전통성을 계승해 왔다. 이는 일본이 섬나라라고 하는 지리적 여건과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는 민족성이 큰 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일본 예술의 특성은 공예의 한 부분인 복식 문화에도 잘 나타나 일본 민족 특유의 미적 특성을 가꾸어 왔다.

### III. 일본의 여자 전통 혼례복식의 미적 특성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의 구성법은 넓은 면적의 길에 여유량을 허용하지 않아 신체에 밀착되는 직사각형 공간을 이루는데, 특히 슈니히토에(唐衣裳, 十二單, じゅうにひとえ)[그림 2]와 우치가케(打掛, うちかけ)[그림 3], 시로무쿠(白無垢, しろむく)[그림 4], 후리소데(振袖, ふりそで)[그림 5]와 같은 후리소데계통의 복식은 일상복보다 여러 가지 표면장식이 가능한 직사각형의 넓은 공간을 형성하고 굵은 직선을 강조하여 입체적, 규칙·직선적, 장중·화려하며, 전통적인 아

름다움 등이 나타나는데, 이상의 미적 특성은 문양, 색상 등을 위주로 한 장식성과 착장성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일본 여자 전통복식의 아름다움을 논할 때 전통적인 문양의미를 들고 있으나, 서양복식의미를 언급할 때처럼 실루엣이나 입체적인 구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의 미적 특성 도출 결과, 뛰어난 착장적 특성이 부각됨을 알 수 있고, 이 착장적 특성은 입체적인 실루엣 등에 의해 부각된다<sup>14)</sup>.

선행연구에서<sup>16-18)</sup> 미(美)란 외적인 미와 내적인 미의 두 가지 가치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

14) 헤이안 말기에서 가마쿠라 시대에 걸쳐 고소데(小袖) 형식이 일반화 되자, 예복으로 화려한 형태의 고소데를 한 장 덧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치가케이다. 또 고소데의 형태 중 예도 초기에 처녀들이 입었던 나기소매의 변형 즉 소매가 더욱 길어진 것을 후리소데라고 한다. 그러나 후리소데와 우치가케는 둘다 고소데의 일종으로 착장법과 소매길이 여부에 따라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웠다. 대개 우치가케는 소매가 길어 후리소데 즉 진수계에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오비를 착용한 예복용 후리소데와 구별하기 위해 넓은 범위의 후리소데 계(係)라는 표현으로 기록하였다.

15) 千村典生, 앞의 논문.

16)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1998, pp.7-25.

17) 오희순·박화순, 의상 디자인, 경춘사, 1994, pp. 3-10.

18)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pp. 92-99.

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의 두 가지 가치 측면을 구성하는 특성을 크게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으로 구분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일본 여자 전통 복식의 미적 특성을 연구한 선행연구<sup>19-20)</sup>를 참고로 문양, 색채와 착장적 특성 등을 중심으로 내·외 미적 특성을 고찰하여, 외적 특성은 장식적 특성, 착장적 특성으로, 내적 특성은 주관적 자연성, 인위적 절제성으로 도출하였다.

또, 미란 연구자의 주관적인 가치만이 아닌 타인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성의 성질을 가져야<sup>21)</sup>하므로 문양과 착장에서 주로 나타나는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의 미적 특성을 양현주·권영숙의 연구<sup>22)</sup>에서 나타난 객관적 미적 감성과 함께 살펴보았다.

## 1. 외적 특성

### 1) 장식적 특성

일본 예술은 일반적으로 추상적이면서 장식성이 강한 응용예술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그 예는 실용성, 기능성 이전에 복잡한 문양을 중심으로 화려하게 꾸미고자 애썼던 초·중기 조문(縵文)토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sup>23)</sup>. 즉 조문의 주술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다양한 문양 속에서 일본 민족의 '꾸미기' 적인 열정 즉 장식적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

문양을 통한 장식적인 욕구는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장식적 특성은 양현주·권영숙의 연구<sup>24)</sup>에서 보인 객관적인 미적 감성 분석 결과 중 '장식적인, 독특한, 화사한, 매력적인' 등의 감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생활 공간에 출현한 문양은 역사, 지리적 위치에 의한 민족성과 그 민족 고유의 조형 양식이며, 변화 요인으로는 소재, 표현기법(외적 요인)과 작가의 의지(내적 요인)를 들 수 있다. 또 의복에서 문양이 시문된 공

간의 넓이와 배치방법은 복식미의 중요한 요인으로 전체 혹은 일부분만 시문된 경우, 소문(素紋), 직문(織紋) 등의 경우에 따라 독특한 미적 특성을 가진다<sup>25)</sup>. 단조로운 일본 복식의 경우 그들 복식에 더할 수 있는 장식의장은 문양과 오비(帶) 등으로, 특히 넓은 직사각형의 의복을 하나의 화폭으로 보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회화풍의 문양을 구성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양을 통해 주로 부각되는 장식미적 특성을 본 연구에서는 환상성, 약동성, 유희성 등으로 도출하였는데 여기서 환상성이란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느끼게 하는 성질로 이는 주관적인 내적 충동이 나 영감에 의해 생겨난다. 약동성이란 생기는 활발한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움직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미적 가치가 도출된다. 유희성이란 즐거움을 부여하는 성질로 헤이안(平安)과 가마쿠라(鎌倉)시대부터 내려온 일본 특유의 '명랑함' 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일본 예술의 본질 중 하나인 '상상의 세계속에서의 명랑함과 기발함' 을 의미하고 있다.

### (1) 환상성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의 특징 중 하나인 '유젠조메(友禪染め: 건 등에 꽃, 산수, 새, 풍경 등을 화려하게 채색하는 기법)는 문양을 통한 환상적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표현주의적 특성 중 하나인 환상성은 문양도안의 생략과 강조의 형태를 통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수(刺繡), 십화염(辻花染), 묘화(描畵), 금박(金箔), 금채(金彩), 금편박(金片薄), 자개 등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서도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본 유파의 화가들이 즐겨 사용했던 금벽(金碧)은 금채기법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시대 불교회화, 조선시대 이금 산수화(梨金山水畵) 등에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처럼 예술과 생활공예 전반에 다양하게 즐겨 사용되어 혼례복, 금채선(金彩扇) 등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진 않다. 즉 일본의 채색 기법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세밀하게 역점을 두어 묘사하고, 부차적인 것은 금채 등의 기법속에 숨어든 것처럼 대담하게 생략한 경향이 보이며, 다소 사실성이 약화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물

19) 千村典生, 앞의 논문.

20) 遠藤教三, 앞의 책, pp. 36-57.

21) 山岐勝弘, 앞의 책, pp. 39-43.

22) 김영자, 앞의 책, p. 12.

23) 오희순·박화순, 앞의 책, pp. 5-7.

24) 양현주·권영숙, 앞의 논문.

25) 쓰지 노부오, 이원혜 역, 앞의 책, pp. 11-25.

26) 양현주·권영숙, 앞의 논문.

27) 김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5, p. 93.



[그림 6] 대정(大政) 4년의  
우치가케에 나타난 문양  
(婚禮衣裳, 1998, p. 25)

의 도안을 장식적인 효과가 강조되도록 만들었다.

[그림 6]은 대정(大政) 4년에 만든 혼례용 우치가케로 청색 바탕에 소나무, 매화, 학, 대나무, 구름 등을 자수, 금채, 채색 기법을 통해 시문한 것으로 금채기법을 이용한 생략화된 구름 도안 위에 자수 기법의 사실적인 소나무와 학 등을 강조하여 혼례복으로서의 주술적 의미를 환상적인 장식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 (2) 약동성

일본 문양에 나타난 특징 중 또 다른 하나는 원근(遠近) 표현에 무관한 묘사법, 대소(大小) 비례와 대칭을 무시한 채 자연물을 대담하게 변형한 도식화 기법과 이들을 다시 비균제적으로 반복 시문하여 약동감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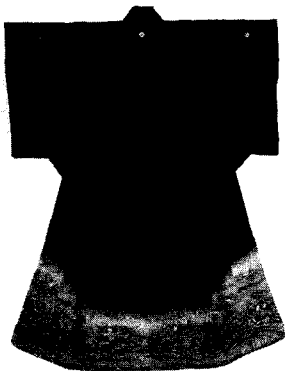
여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일본 예술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동일한 근경(近景) 중심의 문양 구도에서, 원경(遠景)은 근경을 극적으로 강조하는데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중경(中景)은 생략 혹은 약화되어 있다. 이 경우 근경, 중경, 원경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후퇴 혹은 전진감이 나타나지 않고 근경을 중심으로 하는 시각 변화가 빠르게 되어 동적인 미적 감성이 부여된다.

오비(帯)의 폭이 넓어진 에도(江戸) 중기부터 혼례복에 많이 이용된 거(裾)문양[그림 7], 처(裾)문양[그림 8] 등은 다양한 비대칭적, 비균제적 형태로 나타나, 착장자의 의지에 따라 흘러내리듯 다양하게 걸쳐 입었던 우치가케(打掛, うちかけ)류의 비균제적 착장법[그림 9]와 함께 약동하는 듯한 독특한 조형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의 대정(大政) 4년에 만들어진 우치가케에 나타난 채색기법을 이용한 대나무 문양과 [그림 11]의 소화(昭和) 24년에 만들어진 우치가케에 나타난 새와 악기류 문양 등은 자연물을 대담하게 변형 혹은 비대칭적으로 도식화하여 근경 중심의 구도로 주제인 대나무와 새, 악기류가 강조되어 비균제적인 약동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착장자의 예(禮)를 중시하여 격식적인 착장법과 태도를 보이고 있는 조선 혼례복식에 비해 [그림 9]의 우치가케는 오비(帯)의 위치, 겹침의 방식, 여밈 방법, 걸쳐 입는 방법 등에 따라, 혹은 착장자의 자유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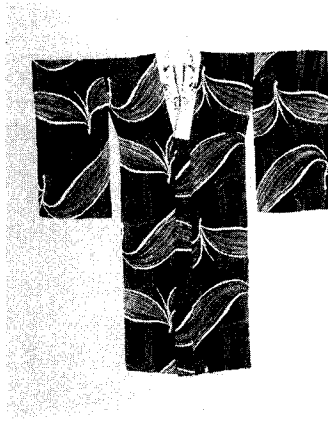
[그림 7] 일본의 거(裾) 문양  
(일본복식사, 1995, p. 147)



[그림 8] 일본의 처(裾) 문양  
(일본복식사, 1995, p. 147)



[그림 9] 우치가케 착장도  
(日本の美術 6, 1996, p.26)



[그림 10] 대정(大政)4년의 우치가케  
(婚禮衣裳, 1998, p.47)



[그림 11] 소화(昭和)24년의 우치가케  
(婚禮衣裳, 1998, p.26)

의지에 따라 형성되는 대담한 비균제적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은 비균제성 등은 좌우대칭을 깨뜨림으로 새로운 생동감과 변화를 주고 있는 것이다<sup>28)</sup>. 또, 그들 특유의 '선의 미'를 '직선적인 주름'을 통해 보여주는 것으로 '호선(弧線)의 자연스러운 미'를 표현한 조선인과는 달리 대담한 약동적인 '직선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백기수는 우아미는 운동성의 특성에 있다<sup>29)</sup>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의 문양에 나타난 비균제적 약동감은 조선 후기 복식의 특성 중 하나인 호선(弧線)이 가지는 자유롭고 유연한 우아미적 특성과는 차별되는 비균제적, 직선적 울동감 특히 약동감을 통한 역동미를 나타내고 있다.

(3) 유희성

조선 복식 예술이 길상(吉祥)에 대한 염원과 바램을 문양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반면, 일본 복식 예술에도 신상, 축복, 액막이 등과 같은 의미를 문양을 통해 나타내고는 있으나, 예속된 상징물로서 보다는 일본인 특유의 기발함, 유희성, 독특함, 대담함 등의 시각적 즐거움을 보다 많이 추구하고 있다. 특히 문양주제 부각을 위한 근경(近景)중심의 구도와 '본뜨기(見立て) 기법'<sup>30)</sup> 즉 이미지 연상 기법을 통해 나타나는 '기발한

시각적 즐거움'을 부여하고 있다.

또 직물이 표현하지 못하는 다양한 주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염색 기법 위에 자수문을 더하여, 이들이 가지는 묘한 생동감과 기발함은 시각적 유희감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그림 10]의 대정(大政)4년에 만들어진 우치가케의 대나무 문양은 신부가 대나무와 같은 절개를 가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자연물인 대나무에 다소 강하게 표현하여 그래픽적인 도안을 표현 주의적인 기법으로 나타내어 묘한 생동감과 시각적 유희감을 부여하고 있다. 문양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희성은 양현주·권영숙의 연구<sup>31)</sup>에서 나타난 주요 구성요인인 유희성, '재미있는, 독특한' 등의 미적 감성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백기수는 골계미를 정의하면서 어떤 대상에 대한 기대와 현실사이에 모순이 인식되면서 기대로 긴장되었음이 실망되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수한 쾌감이며, 또 의외성에 당황하면서 희극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미의식이라고 하였다<sup>32)</sup>. 그러므로 일본 여자 전통복식 등의 문양에서 주로 나타나는 환상성과 유희성은 골계미적 가치를 가진다.

28) 쓰지 노부오, 이원혜 역, 앞의 책, pp. 45-70.

29)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123.

30) 야시로 유키오(先代幸雄)가 언급한 마음과 자연이 어우러져 다시 피어난 '장식적인 자연' 기법.

31) 양현주·권영숙, 앞의 논문.

32) 백기수, 앞의 책, pp. 92-99.

## 2) 착장적 특성

착장이란 적당한 크기와 형태를 지닌 의복 재료로 인체를 장식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은 기본적인 형에 기·미혼의 여부와 신분에 따라 앞에서 매거나 뒤에서 매는 방법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가진 오비(帶)가 화장미(和裝美)의 중심이 되어 왔다. 에도 초기에는 심을 놓지 않은 것, 끈으로 만든 것이 유행하다가 그 후 품이 좁아지고, 기장이 길어지면서 심을 넣은 광폭 오비(文庫結, ぶんこむすび)가 등장하였고, 오비의 풀림을 방지하기 위한 오비도메(帶どめ)를 써서 독특한 일본 복식미가 나타나게 되었다<sup>33)</sup>. 그러나 우치가케는 가게시다(かけしだ)라고 불리우는 기모노 위에 덧입는 것으로 오비로 길이를 조절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또 전문가 없이는 혼자서 착용하기도 힘든 비기능적 의복임도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인 후리소테계(振袖係)의 우치가케와 후리소테 등에 나타나는 착장적 특성을 ‘꼭 끼는, 불편한, 매력적인, 청순한, 품위있는, 정숙한’ 등의 객관적 미적 감성과 주요 구성요인인 ‘품위성, 정숙성’ 등을 바탕으로 품위성, 입체성, 착시성으로 도출하였다.

### (1) 품위성

흔히 일본 여자 전통 복식을 논할 때 ‘요염, 관능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양현주·권영숙의 연구의 미적 감성 분석 결과는 ‘품위있는, 정숙한’ 등의 감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니히토에와 시로무쿠는 품위있는 미적 감성이 유형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로무쿠가 우치 가게시다(打掛下)에서부터 고소테(小袖)와 흰 와타시보우시(綿帽子), 오비(帶), 고모노(小物)까지 흰색으로 통일되어, 20대 한·일 피험자들은 가장 정숙한, 지적인, 차분한, 절제된, 품위있는, 청순한 혼례복으로 생각하였으며, 또, 일본 복식 문화에 대한 선입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단순·절제되고 밀착된 의복형태, 간색을 이용한 색채, 단순하고 직선적인 장신구류 등을 통해 과거 선행 연구자와는 다른 미적 감성 즉 정숙하고 절제된 미적 감



[그림 12] 유니히토에 착장도  
(女子官廷服と構成技法, 1981)

[그림 13] 서의 무(序の舞)  
(服飾の美學 18—和裝の美學, 1991)

성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4)</sup>.

[그림 12]는 습착(襲着)과 밑단에 숨을 두어 품위성이 잘 나타나고 있는 유니히토에 착장도이다. 유니히토에, 우치가케류의 밑단에, 숨을 두어 부여되는 무게감과 八자형으로 퍼지는 장중한 형태감, 옷을 겹쳐 입는 특징인 습착(襲着) 등으로 인해 품위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입체성

일본의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 나타난 입체성은 다다미의 검은 테가 나타내는 직사각형의 단순한 아름다움과 기저를 같이 하는데 서구에서도 네덜란드의 추상파 화가인 몬드리안(Mondrian)이 수직, 수평, 정방형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바 있다. 수직, 수평, 정방형을 기저로 입체감을 보여주는 일본 복식의 선의 미는 추상적, 현대적 미라고 표현할 수 있다<sup>35)</sup>.

특히 밀착된 의복형에 다소 과장되게 돌출한 오비의 부피감은 인체의 입체감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꼭 끼며 입체적인 H형 실루엣, 착장시 형성되는 굽고 간결한 직선적인 주름 및 에도(江戸) 중기 이후 점차 증

34) 양현주·권영숙,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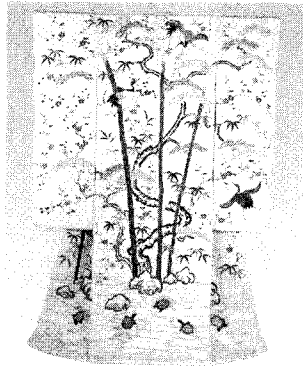
35) 千村典生, 服飾の美學 19—和裝の美學, 日本衣生活 no. 4, 295號, 1991.

33) 千村典生,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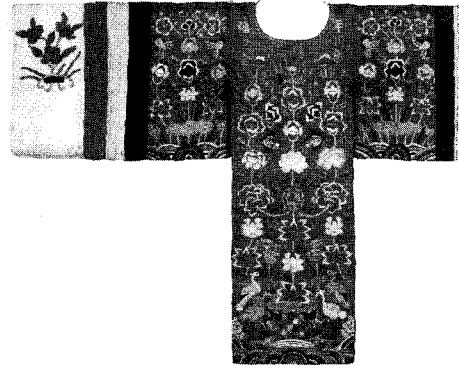




[그림 14] 누기에몬(ぬきえもん)(着つけと帯結び百科, 1999, p.31)



[그림 15] 에도 중기의 우치가케 (婚禮衣裳, 1998, p.12)



[그림 16] 조선시대 활옷 (조선복식미술, 1995, p.102)

가한 오비(帶)의 폭과 크기가 입체적인 직사각형의 혼례복에 더욱 '입체감'을 부여하였다.[그림 13]은 소화(昭和) 11년 카미무라 마츠조노(上村松園)의 미인화 '서의 무(序の舞)'이다. 오비의 높이가 오늘날보다는 약간 높으나 착장미는 거의 같다고 보여지며, 이처럼 오비를 가슴까지 올려맨다는 것은 가슴과 허리선, 엉덩이선을 모두 무시한 즉 체형을 무시한 H형의 원통형이라는 것이다.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평면적인 조선 복식과는 달리 오비를 이용한 강한 수직, 수평, 정방형의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양현주·권영숙의 연구<sup>36)</sup>에서 나타난 '불편한, 꼭끼는, 규칙적인, 세련된' 등의 미적 감성과 연관되는 부분으로 입체적인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은 다소 현대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착시성

단순한 옷 형태 위에 아름다운 균형과 비례를 표현하기 위한 솔기의 직선, 어깨에서 소매에 걸쳐 나타나는 선의 겹침에 의한 V자형 주름 등에 의해 형성되는 긴 직선과 목덜미가 들어나게 뒤로 젖혀 입어 흰분으로 칠해져 있는 뒷 목덜미가 길어 보이는 방법인 '누기에몬'(ぬきえもん), 가슴까지 올려 매는 대의 위치 등에 따라 일본 여성의 작은 키, 목길이 등이 화사하게 길

어 보이게 하는 매력적인 착시성을 부여하고 있다.[그림 14]는 누기에몬(ぬきえもん)의 방법으로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을 착용한 뒷모습의 일부이다.

이상과 같은 부위에 출현하는 착시성으로 인해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은 매력적인, 아름다운 의복으로 나타나는데, 혼례복 유형별 미적 감성 중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매력적인, 아름다운, 화사한' 등의 미적 감성과 연결될 수 있으나 연구자의 주관적인 미적 감성 즉 복식 문화에 대한 선행 지식과 분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나타나는 미적 감성이다.

### (4) 전통성

에도(江戸)시대의 혼례복이나 현대의 전통 혼례복을 형태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그다지 많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의복의 형태가 가마쿠라(鎌倉)시대 이후 그다지 변화하지 않은 점과 외부 윤곽선도 오비의 넓이와 묶는 방법에 따라 조금의 변화만 있을 뿐 오늘날까지 많은 변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은 매우 전통적인 의복이다. 즉 일본 여자 전통복은 시대에 따라 소매폭, 소매 길이와 형태, 품 등에 다소 변화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재단법은 거의 변하지 않고, 특히 의복 전체의 외부 윤곽선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sup>37)</sup>. 또 이들은 형태가 동일하여 키, 몸무게 등에 상관없이 표준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sup>38)</sup>. 이는 양현주·권영숙의 연구<sup>39)</sup>중 높게 나타난 '고전적인' 미적 감성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金由美·

36) 양현주·권영숙, 앞의 논문.

中川早苗의 연구<sup>39)</sup>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일본 민족은 한국 민족에 비해 전통 복식 즉 민족복에 대해 개선 및 개량을 바라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본 민족이 착장 상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통복은 변화, 개량되지 않는 고전적이고 전통적이어야 한다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보수적, 전통적인 일본 민족성이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의 형태를 보수적·전통적으로 이어오게 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내적 특성

복식의 미적 특성은 단순한 형태적 특성인 외적 특성과 예술가의 사상성을 바탕으로 외적 특성에 녹아 있는 내적 특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토마스 먼로는 그의 저서 '동양 미학(1994)'에서 동양의 미적 체계는 고대 그리스 이후 나타나는 서양의 절대미와 주관적인 미 뿐만 아니라 자연과 직관을 중시하는 즉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닌 심관(心觀)을 중시하는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내면에는 동양 문화에 뿌리내린 유, 불, 도(儒, 佛, 道)교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다. 유교가 외면적인 형식을 중시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내적 조화와 외계와의 조화를 중시한 점, 불교가 더욱 내향적으로 '윤회'를 벗어나려는 영적 극기에 관심을 기울인 점, 도교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기반으로 우주 만물의 순화법칙에 따라 자연히 일어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점 등이 그 내용이다.

일본 문화는 헤이안(平安)시대 이후 유·불교를 받아들여 내·외적 조화와 선(禪)미학적 관점으로 '무(無)와 빈곤(貧困)의 미학'이 일본인의 의식에 뿌리깊게 내려져 있다. 이는 일본 전통 문화 주류 '꾸밈과 반꾸밈'<sup>40)</sup>의 문화 중 반꾸밈의 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술가의 마음이 외적 물질적인 것에 사로 잡히지 않고 인생무상과 자연의 본질을 터득하는 것을 의미하

며, 일본의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서는 주관적 감상성을 기저로 하는 자연성, 인위적 절제성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주관적 자연성

'가사네노이로메(襲の色目)'는 색을 통한 일본인의 독특한 의복 장식으로 슈니히토에(唐裝束, 十二單)의 성립과정에서 점차 발달한 것이다. 헤이안시대 귀족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계와 자연 등을 새로운 형식의 의복에 표현하고자 하여 꽃과 나뭇잎의 색 등을 새롭게 조합하여 의복에 자연계를 도입하려고 한 것이었다. 즉 '합세의 색목(合世の色目)'으로 춘하추동의 자연 풍물을 묘사한 것으로, 의복의 표면(表地)과 이면(裏地)의 배색을 말하는 것으로 여자 것의 경우 겹으로 된 규(桂)의 옷깃, 수구, 자락이 이면 천보다 1cm 정도 길게 만들어 여러 가지 배색의 규를 여러장 겹쳐 입으므로 생겨나는 배색의미를 말한다. 후배색의 미는 규보다, 중규(中桂) 5장과 단(單)의 색에 중점을 두게 두었다. 이러한 총체적인 배색방법은 계절, 노고(老高), 공식과 비공식의 구분은 있었으나, 착용자의 취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색을 통해 착용자의 인품을 표현하고자 한 점이 주목된다.

결국 가사네노이로메는 자연에서 얻어졌으나, 계절의 풍물과 착용자의 인격과 취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암시적인 배색으로 승화하였다. 즉 자연의 색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자신의 감상성이 이입된 배색으로 승화한 것이다.

또 문양에서 나타나는 원근 무시, 대소(大小) 비례와 대칭 무시, 대담한 변형을 통한 자연물의 표현은 자연의 사계를 의복에 끌어들이 자신의 감상성에 따라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자연을 관조적, 객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조선인의 자연미와는 다른 감상자의 감정이입을 기대하는 '감상성'<sup>41)</sup>을 특성으로 한다.

[그림 15]는 조선시대 십장생(十長生)문과 유사한 자연물을 주제로 한 우치가케이다. 활옷[그림 16]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십장생 문양의 특징 즉 다채색을 이용한 다소 동화적인 이미지, 좌우 대칭적 구도, 십장

37) 千村典生,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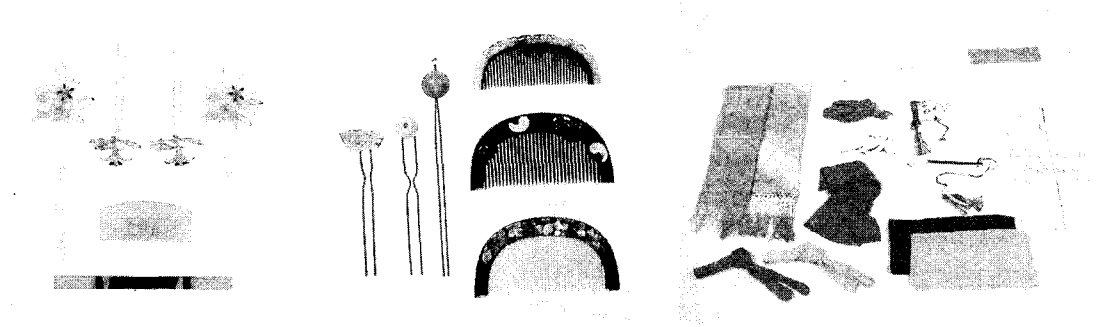
38) 황춘변, 세계전통복식, 수학사, 1996, p.36.

39) 양현주·권영숙, 앞의 논문.

40) 金由美·中川早苗, 앞의 논문.

41) 쓰지 노부오, 이원혜 역, 앞의 책, p.71.

42) 야시로 유키오의 '에뒀한정감' 과 비슷.



[그림 17] 혼례용 전통 장신구(婚禮衣裳, 1998, p.50)

생 모두를 강조하여 가장 객관적으로 표현한 점 등과는 달리 좌우 비대칭적 구도로 주관적인 감상성을 기저로 강조하고자 하는 주제 즉 대나무와 학류 등을 근경구도로 나타내고 있다.

## 2) 인위적 절제성

두식과 화장법 및 장신구 등에서 나타나는 인위적 절제성은 내·외부 윤곽선인 전체 외형을 절제하며, 문양과 색, 오비를 통한 부분의 강조는 일본인 고유의 선호사상 즉 전체의 절제를 통한 부분의 강조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분의 강조는 전체를 더욱 돋보이게 하므로, 혼례복에서 극도로 절제된 장신구의 수와 형태를 사용하여 의복 자체의 아름다움이 더욱 부각되어 절제되고, 세련·우아한 미적 감성을 불러온다.

[그림 17]은 혼례용 전통 장신구류이다. 에도시대 이후 결발(結髮), 도전발(島田髮) 등이 유행하여, 단순한 형태의 빗(櫛), 비녀(簪) 등만으로 머리를 장식하고, 손에 부채를 들었을 뿐인 혼례복은 장신구 수(數)와 그 형태에서 다소 인위적일 만큼 절제된 단순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소재감을 존중한 조선 복식의 장신구에서 보여지는 편안함, 소박함, 복잡함보다는 긴장감, 세련감, 단순함, 절제감 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헤이안시대(平安) 이후 유·불교를 기저로 하는 관점으로 일본인의 의식에 뿌리깊게 내려져 있는 '무(無)와 빈곤(貧困)의 미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된다. 즉, '꾸밈과 반꾸밈'의 문화 중 꾸밈은 의복의 문양과 오비를 통해, 반꾸밈의 문화는 전체 외형과 장신

구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에도시대 미인도에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인 문양을 강조하여 의복을 세밀하고 특색있게 그리며 강조한 반면 얼굴, 손, 발 등을 가늘고 생략화시킨 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문양과 오비, 색채를 강조하기 위해 의복의 전체 윤곽선과 장신구류는 절제한 것으로 이는 일본 민족 고유의 미의식에 기인한 것이다.

## IV. 요약 및 제언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 나타난 미적 특성은 주로 문양과 색채, 착장성 등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상의 미적 특성을 외적 특성과 내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모든 외적 특성에는 내적 특성 즉 사상성이 깃들여 있으나 일본 민족 고유의 사상적 특성이 특히 강조되는 부분을 내적 특성으로 도출하였고, 다양한 외적 특성 중 주로 많이 나타나는 장식적 부분과 착장적 부분에서 미적 특성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식적 특성은 문양에서 주로 나타나며, 주제를 강조하며 부차적인 것을 과감히 생략하는 문양 도안, 금채, 금벽 등을 통한 표현 기법에서 환상성이, 근경 중심, 대칭과 대소 비례를 무시한 구도, 착장자의 의지에 따른 자유로운 착장법과 착장시 형성되는 굵은 직선에서 약동성이, 주제만을 지나치게 부각한 근경 중심의 구도와 이미지 연상 기법을 이용한 문양 형태에서 유희성이 도출되었다.

둘째, 착장적 특성으로는 밑단에 숨을 두어 나타나

는 무게감과 형태감, 옷을 겹쳐 입는 방식인 습착 등에서 품위성이, 돌출된 오비의 부피감, 꼭끼며 입체적인 H형 의복 윤곽선 등에서 입체성이, 술기의 직선과 착장시 형성되는 V자형 주름과 긴 직선, 누기에몬, 가슴까지 올려 맨 오비의 위치 등으로 작은 키의 일본 여성이 길어 보이며 매력적으로 보이는 착시성이, 헤이안 시대와 가마쿠라시대 이후 변함없는 형태 등에서 전통성이 도출되었다.

셋째, 내적 특성으로는 자연의 색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착용자의 인품과 지위, 취향이 더 표출되는 가사네노이로메(襲の色目)는 자연물을 주관적인 감상을 기저로 새롭게 재구성한 자연물 도안 등에서 주관적인 자연성이, 약화·단순하고 절제된 장신구의 형태와 수, 의복의 외곽선을 통해서 인위적 절제성이 도출되었다.

이상과 같은 내·외적인 미적 특성은 조선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 나타난 미적 특성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일본 민족 고유의 독특한 미적 특성으로 생각되며, 그들의 후손인 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에 많은 영향과 기반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현대 일본 디자이너들의 작품세계를 분석하여 이상과 같은 미적 특성을 도출되는가, 이들을 어떻게 이해·응용하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한국 전통 복식 문화를 응용한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문양, 색채, 착장성 등의 미적 특성만을 분석한 연구로 차후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않는 디자인 요소별 미적 특성 및 미적 가치를 세밀히 도출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금기숙, 조선복식미술, 열화당, 1995.  
김영자, 복식미학의 이해, 경춘사, 1998.

김지연·전혜경, 복식에 나타난 해체주의 양식에 관한 연구, 복식 31, 293-311, 1997.

박명희, 이세이 미야게의 의상에 나타난 형태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호, 2-12, 1990.

백기수, 미의 사색,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백기수, 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北村哲郎 著, 이자연 역, 일본복식사, 경춘사, 1995.

쓰지 노부오, 이원해 역, 일본 미술 이해의 길잡이, 시공사, 1995.

양현주·권영숙, 일본 여자 전통 혼례복식에 나타난 미적 감성에 대한 연구, 복식 51, 5-20, 2001.

채금석·양숙희, 20세기 현대복식에 나타난 표현주의, 복식 24, 121-142, 1995.

오희순·박화순, 의상 디자인, 경춘사, 1994.

임영자, 현대 패션 디자인에 나타난 동양의 미의식 연구, 복식 30, 261-274, 1997.

정성혜, 일본 패션이 현대 패션에 미친 영향, 복식 25, 21-40, 1995.

황춘변, 세계전통복식, 수학사, 1996.

金由美·中川早苗, 民族服について意識比較研究-韓·日女學生の民族服について意識差異, 日本家政學會 vol. 49, 417-426, 1998.

山岐勝弘, 被服美學, 柴田書店, 1980.

山切知行 監修, 婚禮衣裳, 東京, 光琳社, 1998.

野間佐和子, 着つけと帯結び百科, 講談社, 1999.

遠藤教三, 服裝とその美學, 太平印刷社, 1970.

日野西資老, 日本の美術 6, 服飾編, 東京國立博物館, 1996.

千村典生, 服飾の美學18-和裝の美學, 日本衣生活 no.3, 294號, 37-42, 1991.

千村典生, 服飾の美學19-和裝の美學, 日本衣生活 no.4, 295號, 48-53, 1991.

票原登子 外 共著, 女子宮廷服と構成技法, 和服篇, 衣生活研究會, 1981.

W. tatarkiewicz. The history of six ideas, Polish of scientific Publishers, 1980.